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53-94
<https://doi.org/10.29212/mh.2023..128.5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 槍術의 군사적 특성과 『武藝圖譜通志』의 槍 武藝

최형국 |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

- 목 차
1. 머리말
 2. 조선전기 槍術의 군사적 활용과 가치
 3. 임진왜란기 槍術의 도입과
조선후기 『武藝圖譜通志』의 槍
 4.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조선전기 창술의 군사적 위상과 활용 형태를 살펴보고, 임진왜란을 거치며 새롭게 조선군에 보급된 명군의 다양한 槍術에 대해 짚어본 글이다. 특히 조선 정조대 간행된 군사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長槍·竹長槍·旗槍·銳鉞·騎槍·狼筈 등 6가지 창술의 기법상 특성과 진법 속에서의 움직임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槍이 갖는 무기사적 의미와 군사무예로서의 가치를 통시대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守城軍은 기본적으로 槍手와

弓手を 각각 50명을 기본으로 하여 편제가 이뤄졌다. 중앙군의 경우도 국왕의 근접 시위에 방패군과 연동하여 창수를 가장 많이 배치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보병용 창검술이 모두 무과시험 과목에서 제외되어 창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과시험 과목 중 騎槍이 유지되어 그나마 기본적인 흐름은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의 전술 및 무기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본군의 조총과 단병접전술을 가미한 전술을 극복하기 위하여 척계광이 정리한 『기효신서』에 담겨 있던 창검법을 조선 방식으로 정리하여 『무예제보』를 편찬하게 되었다. 넷째, 正祖 14年(1790)에는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되었으며, 이 병서에 정리된 여섯 가지 창술은 長槍·竹長槍·旗槍·鎧鉞·騎槍·狼筈 등으로 각각 장단병기가 서로 상생하며 전술에 활용 가능하였다.

주제어 : 槍術, 長槍, 竹長槍, 旗槍, 鎧鉞, 騎槍, 狼筈, 武藝史

(원고투고일 : 2023. 2. 9, 심사수정일 : 2023. 8. 10, 게재확정일 : 2023. 8. 29.)

1. 머리말

고대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군사들이 활용한 短兵接戰用 무기는 槍·劍이었다. 여기에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활과 기계식 발사장치를 갖춘 弩를 비롯한 弓矢類의 무기가 더해지면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안착되었다.

대표적으로 삼국시대 新羅軍의 주력부대였던 長槍전문 부대인 黑衣長槍은 幢主가 총 264명으로 신라의 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편성되어 있을 정도였다.¹⁾ 특히 신라의 장창부대는 唐軍과의 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였음이 여러 전투에서 확인된다.²⁾ 고려시대에도 창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의 훈련이 궁수부대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아 보병의 일정 숫자를 창병으로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³⁾

서양의 전쟁사에서도 고대 그리스의 팔랑크스(Phalanx) 이후 長槍으로 이름을 떨친 부대가 스위스 장창부대였다. 이 장창부대는 15-16세기 유럽의 전술환경 자체를 뒤집어엮을 만큼 파괴력이 커서 중장기병의 몰락과 보병체제 부활의 신호탄 역할을

1) 『三國史記』 卷40, 「雜志」 9 職官 下, “黑衣長槍末步幢主 大幢三十人 貴幢二十二人 漢山二十八人 牛首二十人 完山二十人 紫衿二十人 黃衿二十人 黑衿二十人 碧衿二十人 赤衿二十人 青衿二十人 綠衿二十四人 共二百六十四人 位自舍知至級滄爲之.” ; 신라의 장창당에 대한 연구는 서영교, 「新羅 黑衣長槍末步幢」 『군사』 74, 군사편찬연구소, 2010.의 논문을 참고한다.

2) 『三國史記』 卷43, 「列傳」 3 元述, “時長槍幢獨別校勘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於是 諸幢共言 長槍營獨處成功 必得厚賞 吾等不宜校勘屯聚 徒自勞耳 遂各別兵分散.”

3) 『高麗史』 卷81, 志 卷第35 兵 一, “十一年正月 講武藝於馬巖 分作兩陣 各以諸色匠人 被甲持盾者 爲一隊 執槍旗者 爲一隊 繼以弓手軍 鼓噪相格 傷者頗多.”

하기도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려말 이후 보급된 대형 총통을 비롯한 화약 무기의 보급 및 지속적인 개발과 기병중심의 전술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槍劍類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해 갔다. 거기에 조선의 개국 후 武官 선발 방법이 武科試驗이라는 제도로 안정화 되면서 실기시험 과목에서 제외된 도검류는 弓矢類에 비해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⁴⁾

군사 개개인이 패용하는 刀劍은 점점 개인 護身이나 儀裝 형태로 변화하였고, 그나마 槍類의 무기는 騎槍과 연동하여 보병의 진법 방어용 무기로 일정한 군사 무기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守城用 무기 중 궁시와 짝을 이뤄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군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일정한 훈련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군이 전장에서 대거 활용한 개인화기인 鳥銃은 기병과 弓矢 위주의 조선군에게 전술적 충격으로 다가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본군의 조총을 활용한 전술은 왜검을 비롯한 창검류의 무예와 결합되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⁵⁾ 이에 따라 조선군은 기존의 기병 중심의 전술에서 명군의 다양한 단병접전용 창검술을 시급하게 차용하여 새로운 戰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⁶⁾

조선군은 기존의 궁시와 기병 중심의 전술에 창검으로 무장한 단병접전 보병과 조총·화포를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전법을 갖

4) 『武藝圖譜通志』 「御製武藝圖譜通志序」, “(임란 전) 오직 弓矢 한 가지에만 그쳤을 뿐 槍劍 등 다른 기예(무예)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 전기에는 활을 제외한 창검술 사용법은 군사훈련 현장에서 서서히 중요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5) 鄭海恩,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군사』 51, 군사편찬연구소, 2004, 164-174쪽.

6)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연구—擊劍方式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97-105쪽.

추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短兵器 중에 長兵器로 분류되는 槍類의 무기는 조선말기까지 조선군의 한 병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단병무기 중 刀劍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결과물이 축적되어가고 있다.⁷⁾ 특히 도검의 전투적 기능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벽사 혹은 종교적 기능으로 변화한 검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지고 있다.⁸⁾ 여기에 刀劍이 상징하는 문학적인 의미를 살피는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⁹⁾

이에 반해 창류의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연구 성과는 김산의 연구인데, 『武藝圖譜通志』(1790)에 실린 長槍을 중심으로 현재 다양한 무예단체에서 복원한 장창의 운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¹⁰⁾

또한 허인욱은 조선 출신으로 명의 요동 동녕위에 소속된 군인이었다가 다시 조선에 귀화한 金加勿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甲乙槍과 三甲槍 등 騎兵의 창술에 대해 잘 정리하였다.¹¹⁾ 이 연구는 조선전기 군사 훈련법을 바탕으로 무예교육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이밖에 김산·김주화·김창우·송일훈 등이 함께 연구한 결과물은 한중일의 장창술을 비교하며 그 의미를 짚어내었다.¹²⁾

7) 刀劍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성문, 「조선시대 環刀의 기능과 제조에 관한 연구」 『學藝誌』 3, 육군박물관, 1993. ; 김성혜·박선식, 「조선시대 刀劍의 실측과 분석」 『學藝誌』 5, 육군박물관, 1997. ;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한국의 칼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7회 추계학술발표회), 육군박물관, 2002.

8) 이석재, 「寅劍의 辟邪 원리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71, 한국민속학회, 2020.

9) 조희상, 「조선의 神劍에 대한 고찰-刀劍文學作品과 現存 遺物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6, 동방한학회, 2021.

10) 김산, 『무예도보통지 長兵武藝 복원의 실제와 비판』,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1) 허인욱, 「金加勿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전기 槍術」 『무도연구소지』, 20-1,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09.

12) 김산·김주화·김창우·송일훈, 「韓·中·日 長兵武藝 長槍 研究」 『한국체육학회지』 47-6, 한국체육학회,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 창술의 군사적 위상과 활용 형태를 짚어보고, 임진왜란을 거치며 새롭게 조선군에 보급된 명군의 다양한 槍術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 정조대 간행된 군사무예서인 『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된 長槍·竹長槍·旗槍·鑣鈚·騎槍·狼筈 등 6가지 창술의 기법상 특성과 진법 속에서의 무예 움직임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예의 움직임의 경우는 문헌 기록의 고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자가 몸으로 수련하여 익힌 實技史의 내용을 더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槍兵이 갖는 기술사적 의미와 군사무예로서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면서 향후 군사무기 및 무예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선전기 槍術의 군사적 활용과 가치

조선전기 槍은 긴 길이를 이용하여 적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어 遠射무기인 弓矢와 짝이 되어 주로 활용되었다. 太宗代에 의 정부에서 各道의 성곽 보수와 관련한 시급한 사항을 정리한 기록을 보면, 守城軍의 역할을 담당할 보병의 핵심 병과를 每牌에 각각 槍手 50명, 弓手 50명을 기본 체제로 만들어 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馬兵은 正官 하나에 전투마가 있고, 몸이 튼튼한 奉足을 둘로 하여 보병과의 비율을 맞췄다. 또한 성곽뿐만 아니라, 일반 고을의 자치방위를 위하여 守丞을 중심으로 활쏘기와 창술훈련이 농한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 水陸 諸色軍丁과 馬兵·步兵의 強弱을 分揀하여, 馬兵은 正官 하나에 말(馬)이 있고 몸이 튼튼한 奉足을 둘로 하고, 步兵은 正官 하나에 말(馬)이 없고 몸이 튼튼한 奉足을 둘로 하고, 槍쓰는 것과 활 쏘는 것을 分間하여 每牌에 50명씩으로 체제를 정할 것.

하나, 큰 고을은 摠牌 4-5명, 작은 고을은 摠牌는 2-3명으로 한다. 軍額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 각각 그 고을의 중심과 四面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分定한다. 매년 2월 초1일부터 그믐날까지, 10월 초1일부터 그믐날까지 槍 쓰는 법과 騎射·步射의 법을 익히게 한다.¹³⁾

위의 기록을 보면, 조선초기부터 모든 고을은 수령의 지휘 아래 해마다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에 고을을 일정한 방위구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군사들의 군사적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훈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이 훈련했던 군사무예가 보병의 槍術과 弓術 그리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騎射가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槍術과 弓矢를 함께 운용하는 방식은 守城戰 뿐만 아니라, 함경도를 비롯한 북방 국경지역에서 가장 쉽게 조합할 수 있는 방어전술이기도 했다. 가장 소규모 형태의 전술을 보면, “3인으로 하여금 1인은 防牌를 갖고, 1인은 長槍을 갖고, 1인은 弓矢를 갖게 한다.”¹⁴⁾는 방식으로 원사무기와 단병접전 무기를 혼용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 기병이 주축인 북방 野人을 방비하기 위하여 조선군은 槍兵의 숫자를 일정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13) 『太宗實錄』 16卷, 太宗 8年 7月 19日 乙丑條.

14) 『成宗實錄』 257卷, 成宗 22年 9月 4日 丁丑條.

이유로 북방에서 발생한 전투 중 야인들에게 패하여 조선군의 빼앗긴 무기 물품을 보면, “槍 97柄, 長刀 20柄, 角弓 63丁, 加達箭 2천 6백여 枚를 잃었다.”¹⁵⁾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보병용 창을 활용하는 방어전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선을 건국한 후 고려와는 다르게 武人 관료인 武官을 뽑을 때 공식적인 과거시험인 武科를 통해 인원을 선발하였다. 새롭게 정착된 무과의 실기시험은 “初場에는 步射로서 片箭을 쓰되 모두 2백 步에 限하고, 中場에는 騎射로서 直背 다섯 발, 騎槍으로 揮著 및 奪避하는 방식으로 하고, 終場에는 武經七書를 講한다.”¹⁶⁾는 방식으로 禮曹를 통해 規式이 정해졌다. 이때 말을 달리며 창을 쓰는 騎槍의 수련을 위하여 步槍 즉, 보병이긴 창을 연마하는 수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기창을 이용한 시험에서는 짙 인형인 芻人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훈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얼굴 부위를 정확하게 찌를 경우 7分の 추가점수를 줄 정도로 창술의 정교함을 요구하였다.¹⁷⁾ 따라서 步槍術 수련을 하지 않을 경우 무과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었다.

太宗代 무과시험으로 정리된 기병의 馬槍法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武科의 馬槍法은 두 사람을 하나의 一對로 하여, 두 전투마가 각각 1백 30步씩 떨어져 있다가, 북을 친 뒤에 槍을 휘두르며 달려가서 서로 接戰하되, 모두 세 차례씩 하고, 잘 맞혀 붉은 흔적이 있는 자는 7分을 주고, 한 번 맞힐 때마다 7分씩 加給한다.”¹⁸⁾

15) 『太宗實錄』 19卷, 太宗 10年 5月 29日 乙未條

16) 『太宗實錄』 19卷, 太宗 10年 1月 12日 己卯條

17) 『太宗實錄』 21卷, 太宗 11年 3月 10日 庚午條

18) 『太宗實錄』 21卷, 太宗 11年 3月 13日 癸酉條

太宗代 정리된 武科의 馬上槍術은 두 기병이 130步 떨어진 상황에서 서로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접근해 창을 가지고 세 차례 교전을 펼쳐 몸에 묻은 붉은 흔적의 유무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朱痕 즉, 붉은 흔적은 무과시험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날 부분을 가죽으로 감싼 皮頭槍의 형태였으며,¹⁹⁾ 이 부분에 붉은색 물감을 발라 타격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²⁰⁾

이후 世宗代에는 전투마가 서로 부딪쳐 인명사고가 나거나 서로 점수를 얻기 위해 무작정 찌르려고 달려들어 창술의 자세가 망가지는 것을 이유로 다시 芻人으로 시험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²¹⁾ 당시 兵曹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창 쓰는 법을 올바르게 익히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런 이유로 무과에서 만약 그 정확한 자세를 잃고 창을 떨어뜨릴 경우는 추인을 맞혔다 하더라도 점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수정하였다.

또한 중앙군인 甲士의 경우는 무과시험이나 關武 등 국왕이 친림한 가운데 진행된 군사관련 행사에서 木槍이나 木劍을 들고 직접 交戰을 펼쳐야 했기에 槍術은 지속적으로 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東郊에 거둥하여 武科初場을 친히 시험하였다. 인하여 甲士는 木槍을 가지고, 防牌軍은 木劍을 가지고 서로 겨루게 하였다. 다음에 火筒軍으로 하여금 鐵翎箭과 石彈子를 방포하게 하였는데, 甲士 두 사람이 木劍에 傷하여 이튿날 죽었다.²²⁾

19) 『世宗實錄』 51卷, 世宗 13年 3月 18日 壬午條

20) 최형국, 「조선 肅宗代 地方 騎兵部隊 창설과 馬上武藝의 변화」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2011, 94-100쪽.

21) 『世宗實錄』 19卷, 世宗 5年 3月 15日 丙申條

22) 『太宗實錄』 19卷, 太宗 10年 3月 11日 丁丑條

위의 기록을 보면, 국왕이 친림한 가운데 훈련용 木槍을 든 갑사와 방패로 무장한 방패군이 목검을 가지고 서로 모의 전투 처럼 교전을 진행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실전처럼 진행하다가 木槍을 든 갑사가 木劍에 맞아 그 다음날 2명이 죽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창술훈련이 실전처럼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왕의 親臨 행사 때 창병들의 무예 훈련을 진행한 것은 시위군 중 창병이 儀仗과 扈衛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기 때문이었다.²³⁾ 특히 世宗代에는 국왕이 교외에 거동할 경우 창부대 2개를 따로 운용할 정도로 국왕시위군의 핵심을 담당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창부대의 운영 형태를 알 수 있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거동할 때 여러 신하들의 시위하는 序次는 御駕 뒤에 第一 運槍牌, 그 뒤는 兵曹, 다음에는 承政院·備身上護軍·護軍·扶策大護軍이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內侍行首와 侍臣·第二 運槍牌의 뒤는各司가 차례로 시위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⁴⁾

御駕 바로 뒤쪽에 제1운창패를 배치하고 대열의 중간 즈음에 제2운창패를 배치하여 창부대를 통해 어가행렬의 방호력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世祖代에는 국왕이 습진에 거동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가 刺客가 갑자기 침범하는 상황을 꾸며 弓矢와 훈련용 朱槍을 이용하여 교전을 펼치게 한 경우도 있었으며,²⁵⁾ 일반적인 국왕 교외 거동 상황에서도 槍軍 400명과 射軍

23) 『太宗實錄』 29卷, 太宗 15年 2月 29日 丁酉條 ; 『太宗實錄』 36卷, 太宗 18年 8月 1日 戊寅條

24) 『世宗實錄』 3卷, 世宗 1年 3月 4日 戊申條

25) 『世祖實錄』 31卷, 世祖 9年 12月 22日 丙午條

400명을 把截의 임무로 배치하였다.²⁶⁾

이러한 국왕의 시위 행렬에서 槍兵의 중요성으로 인해 왕실 國葬행렬에서도 창부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²⁷⁾ 이때에는 창병의 의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 전체를 붉은색으로 칠한 丹槍을 들게 하였다.

이러한 창술에 대한 관심은 조선군 전술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세종대 정리된 陣圖法에서는 병종의 배치 순서를 “防牌 다음은 槍과 長劍, 그 다음은 火燭과 弓弩, 그 다음은 騎槍, 그 다음은 騎射로 陣 안에 布列한다.”²⁸⁾고 하여 槍은 진법을 구축할 때 방패와 짝을 지어 적의 공격을 최전선에서 막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방패와 창, 특히 長槍을 결합한 전술은 조선 전기 倭寇와 북방 野人을 방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戰線 앞 열의 방호를 강화해야만 조선군의 핵심 병기인 銃筒의 안정적인 방포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²⁹⁾ 특히 북방의 국경지역에서는 正軍이외의 보조병력인 次正軍과 餘丁을 隊卒로 삼고 槍劍 훈련을 항시적으로 진행하였다.³⁰⁾

이러한 이유로 좀 더 정교한 槍術 훈련이 보병에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明의 遼東 東寧衛에 소속된 군인이었다가 조선에 귀화한 上將 金加勿을 중심으로 조선군의 전문적인 창술훈련이 진행되기도 하였다.³¹⁾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世祖實錄』 47卷, 世祖 14年 7月 25日 壬午條.

27) 『世宗實錄』 17卷, 世宗 4年 8月 22日 丙午條. 이러한 창류의 무기를 이용한 시위 및 의장성 확보는 조선후기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槍劍軍이라는 명칭으로 특별히 관리되었다.(『日省錄』 正祖 元年 丁酉(1777) 11月 3日(乙丑).)

28) 『世宗實錄』 12卷, 世宗 3年 7月 9日 己巳條.

29) 『世祖實錄』 34卷, 世祖 10年 8月 1日 壬午條.

30) 『世宗實錄』 82卷, 世宗 20年 9月 16日 丁酉條.

31) 허인욱, 「金加勿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전기 槍術」 『무도연구소지』 20-1,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09, 35-40쪽.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사가 槍 쓰는 법에 익숙하지 못하면 심히 불가하오니, 內禁衛·別侍衛의 甲士 중에서 창 쓰는 시험에 입격한 자는 매일 訓練觀에 모여 연습하게 하고, 都鎭撫 成達生과 上將 金加勿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여, 창법에 능숙한 자 40명을 선택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수해 익히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³²⁾

위의 사료에 등장하는 김가물은 太宗 10년(1410)에 정5품의 司直으로 시작하여 世宗 15년(1433)에 上護軍까지 승진한 인물로 실록에, “加勿은 귀화해 온 자로서 창 쓰는 법을 알아서 항상 방패군을 거느리고 木杖으로 서로 치는 것으로 창 쓰는 방법을 연습시켰다.”³³⁾라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창술실력이 뛰어난 장수였다. 특히 그는 세종 때 동북방면의 여진족에 대비해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인 六鎭 중 하나인 慶源 지역에서 창을 들고 교전을 펼쳐 야인을 격퇴했던 실전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³⁴⁾

이렇게 보병의 창술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창 자루에 사용할 二年木(중가시나무) 대신 구하기 쉬운 질긴 나무로 대체하거나³⁵⁾ 군사들이 실전에 사용할 창의 길이를 통일화시키는 작업이 兵曹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무기 통일화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軍器監의 각색 槍을 상고하오니, 어떤 것은 12-13尺, 혹은 10척, 11척, 혹은 8, 9척으로서 長短이 같지 아니하여, 殿庭에 벌여 세울 때에 높고 낮은

32) 『世宗實錄』 51卷, 世宗 13年 3月 22日 丙戌條

33) 『世宗實錄』 61卷, 世宗 15年 7月 16日 丁卯條. “加勿 投化者也 知用槍之術 常領防牌 以木杖相擊 肄 習用槍之方.”

34) 『太宗實錄』 19卷, 太宗 10年 5月 15日 辛巳條

35) 『世宗實錄』 29卷, 世宗 7年 9月 25日 辛酉條

차이가 있어 미편하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군기감 및 각도 방물소의 槍 만드는 장단 척수를 본조에서 삼군 도진무와 군기감 제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참작해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³⁶⁾

官制 무기의 규격 통일은 전술의 일반화와 규격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다. 당시 창 의 길이는 진법 안에서 방패의 규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정확한 통일규격이 나와야 안정적인 진법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³⁷⁾ 이런 이유로 議政府에서, “槍은 短兵의 가장 긴요한 무기다.”³⁸⁾라고 언급하며 창 규격의 통일작업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세조대에 중앙의 軍器寺를 제외한 전국에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제조했던 武器의 물량이다.

(표 1) 世祖代 전국의 1년 詳定 武器제조 물량 증 창 관련 (軍器寺 제작 제외)³⁹⁾

연 번	지 역	무기제작 물목과 수량
1	開城府·忠州·洪州·慶州·安東·晉州·尚州·星州·金海·密陽·全州·羅州·濟州·光州·南原·長興·順天·海州·江陵·咸興·吉州·鐘城·穩城·會寧·慶源·平壤·安州·義州 : 총 28개 지역	鄉角弓 57張, 磨箭 29部, 筒箭 28部, 長槍 22柄, 中槍 33柄, 環刀 57把, 弓弦 114箇, 鐵甲 5領, 大錚 1, 中錚·小錚 各 3, 鼓 2, 大角·小角 各 3 (장창 : 616柄, 중창 : 924柄)
2	水原·江華·南陽·公州·清州·泰安·蔚山·咸陽·豐基·陝川·永川·興海·清道·寧海·迎日·熊川·善山·昌原·扶安·茂長·靈巖·靈光·樂安·錦山·興陽·黃州·延安·長湍·平山·原州·三陟·永興·定平·鏡城·安邊·定州·成川·肅川·寧邊 : 총 39개 지역	鄉角弓 46張, 磨箭·筒箭 各 23部, 長槍 18柄, 中槍 26柄, 環刀 46把, 弓弦 92箇, 鐵甲 3領, 大錚 1, 中錚·小錚 各 2, 鼓 2, 大角·小角 各 2 (장창 : 702柄, 중창 : 1,014柄)

36) 『世宗實錄』 52卷, 世宗 13年 6月 29日 辛酉條

37) 세종대 논의된 창 의 길이는 이후 문종 1년(1451)에 다시 논의하여 수정 확정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文宗實錄』 8卷, 文宗 1年 6月 14日 辛巳條

38) 『世宗實錄』 93卷, 世宗 23年 6月 20日 乙酉條. “槍 乃短兵最緊之器也.”

39) 『世祖實錄』 39卷, 世祖 12年 7月 12日 辛巳條.

3	<p>廣州·楊州·驪興·韓山·舒川·沔川·瑞山·林川·天安·沃川·靑松·草溪·鎭川·報恩·禮川·榮川·梁山·咸安·金山·昆陽·大丘·義城·宜寧·盈德·昌寧·泗川·居昌·巨濟·南海·彥陽·河東·長鬐·固城·古阜·珍島·淳昌·金堤·務安·咸平·沃溝·光陽·海南·瑞興·白川·谷山·遂安·安岳·豐川·甕津·襄陽·平海·杆城·北靑·慶興·德源·富寧·文川·端川·江界·昌城·朔州·慈山·宣川·順川·泰川·熙川·价川 : 총 67개 지역</p>	<p>鄉角弓 張, 磨箭·筒箭 各 18部, 長槍 15柄, 中槍 21 柄, 環刀 36 把, 弓弦 72箇, 鐵甲 2領, 大鎗 1, 中鎗·小鎗 各 2, 鼓 2, 大角·小角 各 2 (장창 : 1,005柄, 중창 : 1,407柄)</p>
4	<p>長湍·交桐·富平·仁川·利川·楊根·豐德·安山·安城·槐山·鴻山·堤川·德山·平澤·稷山·恩津·扶餘·庇仁·結城·保寧·藍浦·永同·溫陽·丹陽·淸風·慶山·開寧·三嘉·河陽·漆原·仁同·知禮·安陰·高靈·玄風·軍威·比安·義興·靈山·機張·綾城·龍安·咸悅·高山·泰仁·興德·井邑·高敞·求禮·谷城·長城·任實·長水·鎭安·茂朱·同福·大靜·旌義·潭陽·益山·康津·新溪·信川·鳳山·載寧·康翎·鐵原·通川·寧越·淮陽·春川·蔚珍·洪原·利城·高原·江西·龍岡·三水·咸從·永柔·甑山·三登·殷山·祥原·中和·德川·嘉山·郭山·鐵山·龍川·碧潼·理山·龜城 : 총 93개 지역</p>	<p>鄉角弓 26張, 磨箭·筒箭·各 13 部, 長槍 8柄, 中槍 18柄, 環刀 26 把, 弓絃 52箇 (장창 : 744柄, 중창 : 1,744柄)</p>
5	<p>坡州·高陽·交河·通津·金浦·陽智·朔寧·麻田·永平·龍仁·振威·陽川·砥平·抱川·積城·衿川·川寧·漣川·陰竹·陰城·加平·竹山·果川·文義·懷仁·定山·靑陽·延豐·陰城·淸安·懷德·鎭岑·連山·尼山·大興·石城·海美·康津·新昌·禮山·木川·全義·燕岐·永春·黃澗·靑山·牙山·咸昌·閔慶·禮安·淸河·奉化·鎭海·眞寶·丹城·龍宮·山陰·新寧·臨坡·萬頃·金溝·龍潭·玉果·礪山·南平·珍山·昌平·珍原·雲峯·和順·兎山·文化·牛峯·長連·松禾·殷栗·江陰·伊川·平康·金化·狼川·洪川·楊口·麟蹄·安峽·高城·平昌·金城·歙谷·旌善·橫城·三水·甲山·博川·雲山·淸原·順安·孟山·陽德 : 총 99개 지역</p>	<p>鄉角弓 17張, 磨箭 9部, 筒箭 8部, 長槍 7柄, 中槍 10柄, 環刀 17把, 弓絃 34箇 (장창 : 693, 중창 : 990柄)</p>
총계	<p>전국 326 지역</p>	<p>전국 창 제조 숫자 : 9,839柄 (장창 : 3,760柄, 중창 : 6,079柄)</p>

위의 기록을 보면, 1년 동안 전국에서 제작된 長槍의 숫자는 3,760柄이고, 中槍은 6,079柄으로 도합 9,839柄으로 약 1만 자루의 槍이 해마다 제조되어 군사들에게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중앙 무기 제작처인 군기시의 물량까지 더해지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났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숫자의 長槍을 비롯한 槍類가 조선군의 무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보병이 창을 운용하는 기법인 步槍術보다는 무과시험에서 주로 활용되는 弓術과 기병의 馬上武藝에 집중되면서 步兵들이 실전에서 창을 사용하는 기법은 점점 더 퇴보하였다. 이런 이유로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의 鳥銃과 槍劍을 혼용한 새로운 전술에 전쟁 초기 조선군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⁴⁰⁾

3. 임진왜란기 槍術의 도입과

조선후기 『武藝圖譜通志』의 槍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의 전술 및 무기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대표적으로 騎兵과 대형 진법 중심의 五衛체제의 전법으로는 일본군의 전술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개전초기 조선군의 주된 패전원인이기도 했다. 당시 일본군이 활용했던 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전술적 혼란은 다음의 논고를 참고한다. 노영구, 「임진왜란 이후 전법의 추이와 무예서의 간행」 『한국문화』 2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1. ; 鄭海恩,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군사』 51,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최형국, 「조선후기 拳法の 군사무예 정착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군사』 101, 군사편찬연구소, 2016.

그 진법이 깃대를 진 자는 앞에 서고 鳥銃을 가진 자는 다음에 서고 槍劍을 가진 자는 또 그 다음에 서서 정연하게 대열을 이루고, 좌우에 또 교묘하게 奇兵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싸움에 임할 때마다 깃대를 진 자는 대열을 좌우로 분산하고, 조총을 가진 자는 총을 쏘며, 창검을 가진 자는 기세를 타고 돌진하면서 좌우로 대열을 분산합니다. 깃대를 진 군사는 또 양쪽으로 에워싸고 나아가 좌우의 伏兵과 함께 적의 후미를 포위합니다. 이렇게 하여 분투하면서 분산할 때 또 많은 복병을 좌우에 배치하고, 조총과 창검으로 각각 하나의 부대를 삼아 숲속에 흩어져 매복하기를 마치 새와 짐승이 은복하듯 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의 군사로 유인하여 적이 매복한 곳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잇따라 일어나 공격합니다. 그들이 分散 伏兵하는 형상을 보건대 몹시 巧詐합니다.⁴¹⁾

위의 기록은 임란당시 조선군에 항복한 후 귀화한 왜군인 降倭兵 呂汝文이 訓練都監에서 일본군의 전술을 설명한 내용이다. 여여문은 조선에 투항한 후 훈련도감의 槍劍術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명나라 장수 楊鎬가 이끄는 援軍의 慶州 진공 작전에 참여하여 왜군의 복장을 하고 정탐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戰死하였다.

특히 그는 接伴使 李德馨과 함께 비밀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울산지역의 太和江으로 숨어 들어가 일본군의 虛實을 살피고 島山에 올라가 險易를 엿보아 지도를 그려 楊鎬에게 보내기도 하였다.⁴²⁾ 위의 사료에서 여여문이 설명한 일본군의 전술은 소위 ‘三疊陣’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작은 깃발부대가 시선을 가렸다

41) 『宣祖實錄』 72卷, 宣祖 29年 2月 17日 甲寅條.

42) 『江漢集』 26卷, 跋尾 詔制考, 平倭慰諭勅. “十一月 率師南下 至義城 與接伴使李德馨 陰遣降倭呂余文 入清正營 居三日 余文潛趨太和江 察其虛實 升島山 覘其險易 爲之圖而上于鎬 倭奴窟穴及士卒聚寡 可得而知也 鎬大喜 乃以朱筆畫三路所從入處 徧示諸將.”

가 좌우로 흩어지고 바로 이어 조총수들이 연속 사격을 가하여 대열을 무너뜨리는 형태였다. 이후 창과 검으로 무장한 창검수들이 달려들거나 伏兵의 형태로 움직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일본군의 독특한 조총과 단병무예를 결합한 전술로 인해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의 한강 이하 최종 방어선도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군도 신속하게 조총과 창검을 함께 운용하는 전술을 보완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왕인 선조가 “우리나라 사람은 槍劍을 사용할 줄 모르니 1~2년 사이에 敎習시킬 수가 없다.”⁴³⁾고 언급할 정도로 군사현장에서 창술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따라서 선조가 援軍으로 참전한 明軍에게서 창검술을 직접 배우도록 지시하거나,⁴⁴⁾ 훈련도감에 소속된 降倭兵에게 창검술을 보급하도록 하였다.⁴⁵⁾ 임란 당시 명군이 새롭게 보여준 다양한 창술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三枝槍, 偃月刀, 箕箕, 鏜把, 藤牌 쓰는 법 등을 보여주고 나서 遊擊이 말하기를, “지금 저 여러 기법을 각기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별로 기묘하게 보이지 않지만, 만약 저것들을 한 부대로 편성하여 서로 치고 막고 하는 모양을 한꺼번에 하게 하면 참으로 볼 만합니다.” 하고서, 여러 기법을 한꺼번에 보이도록 명하니, 隊長이 맨 앞에 서고 등패가 그 다음에, 砲手가 또 그 다음에, 그리고 낭선·장창·삼지창의 순위로 서서 서로 번갈아 전진과 후퇴를 하고 좌로 돌고 우로 빠져나오고 하면서 각자 있는 묘기를 다 자

43) 『宣祖實錄』 46卷, 宣祖 26年 12月 19日 戊辰條

44) 『宣祖實錄』 47卷, 宣祖 27年 1月 8日 丁亥條

45) 『宣祖實錄』 48卷, 宣祖 27年 2月 29日 戊寅條

랑하였다. 遊擊이 말하기를, “저 한 부대에서 단 1명이라도 죽으면 그 나머지는 비록 살아 있어도 모두 軍法으로 처단하기 때문에 제각기 死力을 다하는 것입니다.”하였다.⁴⁶⁾

위의 사료는 明軍이 서울의 露梁津 근처 銅雀洞 沙場에서 白布로 城堞 모양같이 만들어진 것을 휘장으로 둘러놓고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다. 당시 군사훈련을 참관한 宣祖는 명군이 사용한 낭선·장창·삼지창 등 다양한 중국의 槍類 무기 사용법을 보게 되었고, 훈련도감에 명하여 신속하게 명군의 창술을 조선군에 보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앙군뿐만 아니라 지방군과 僧兵까지도 단병접전 무예를 익히게 되었다.⁴⁷⁾

임란 당시 명군이 활용한 여러 창류를 포함한 단병접전용 무예는 중국의 장수 戚繼光이 정리한 『紀效新書』(1560)에 담겨 있었는데,⁴⁸⁾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 兵書를 시급하게 구하고 조선군의 무예 보급을 위해 훈련도감 郎廳 韓嶠가 책무를 도맡게 되었다. 이렇게 『기효신서』에 담긴 내용 중 창검법을 모아 조선 최초로 만든 무예서가 『武藝諸譜』(1598)였다.

이 병서에 실린 여섯 가지 무예는 棍棒·籐牌·狼筈·長槍·鎧鉞·長刀 등으로 주로 일본군이 사용했던 倭劍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槍術이 주를 이뤘다.⁴⁹⁾ 이렇게 조선군에 다양한

46) 『宣祖實錄』 卷99, 宣祖 31年 4月 庚申條.

47) 『宣祖實錄』 卷49, 宣祖 27年 3月 丙午條.

48) 『紀效新書』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한다. 노영구, 「선조대 紀效新書의 보급과 진법논의」, 『軍史』 34, 군사편찬연구소, 1997.; 노영구, 「임진왜란 이후 戰法의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韓國文化』 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1.

49) 『宣祖實錄』 卷102, 宣祖 31年 7月 戊申條; 『武藝諸譜』에 대한 연구는 병서의 편찬과정과 판본 및 무예 내용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중 일본군의 왜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한다.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 交戰 변화 연구—擊劍方式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창술이 보급되고, 조총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전술적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훈련도감에서 핵심적으로 안착시키고자 했던 조선군의 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訓練都監에서 연습하고 있는 군사로 鳥銃이 좌사·우사에 각 1哨가 있고, 殺手도 좌사·우사에 각 2哨가 있는데 이것을 합해 1營을 만들어 陣을 설치하여 진진 후퇴하되 行列을 성글게 하여 차례로 나아가고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射手 각 1초를 조총의 뒤, 살수의 앞에 있게 하여 적과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조총으로 제압하고 다음은 弓矢로 잇대며 가까이 부딪친 경우에는 長槍과 短兵으로 서로 제압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병기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 군병의 마음도 믿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⁵⁰⁾

위의 기록을 보면, 조총과 창검으로 무장한 殺手 병력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전통적인 弓矢를 조총의 뒷 열과 살수의 앞 열에 배치하여 적과 가장 먼 거리에서는 조총으로 방포하고 이후 궁시를 연달아 발사했다가 마지막에 적과 단병접전이 이뤄지면 長槍을 비롯한 단병무기로 일본군을 상대하는 전술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鳥銃·弓矢·槍劍을 조합한 것이 三手兵체제였으며, 임란 이후에는 중앙군뿐만 아니라 지방의 東伍軍도 이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⁵¹⁾

그리고 光海君 2년(1610)에는 『무예제보번역속집』이 간행되어 後金 기병을 상대하기 위한 防胡전술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루가 길고 칼날이 튼튼한 무기인 靑龍偃月刀와 夾刀棍이 추가된다. 이 두 가지 무기는 창과 칼을 겸할 수 있는 무기라서 禦倭전술

50) 『宣祖實錄』 卷99, 宣祖 27年 3月 癸卯條.

51) 『惺所覆韻藁』 18卷, 文部15 ○紀行 上 漕官紀行 辛丑年 10月 16日.

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思悼世子の 代理聽政期인 英祖 35年(1759)에 竹長槍과 旗槍을 비롯한 창검류의 무예 12가지를 보완하여 『武藝新譜』가 편찬되었고, 騎槍을 비롯한 기병이 익혔던 마상무예 여섯가지를 추가하여 총 24가지의 무예 24기로 완성한 『武藝圖譜通志』가 正祖 14年(1790)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에 실려있는 槍類의 무예는 공식적으로 조선군이 전투에서 활용했던 모든 槍術의 집대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병서는 “兵技는 刺(찌르고), 砍(베고), 擊(치는)의 세 가지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으므로, 이제 槍·刀·拳 등 세 가지의 기예를 시작하는 머리로 삼는다.”라고 凡例에서 따로 설명할 정도로 刺法에 해당하는 槍類를 가장 먼저 정리하였다.⁵²⁾

『무예도보통지』의 1권에는 長槍·竹長槍·旗槍·鎧鉞·騎槍·狼筈 등 총 6가지의 창류의 무예가 정리되어 있다. 이를 순서대로 진법 속에서의 움직임이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長槍은 전체 1丈 5尺으로 잘 부러지지 않는 주목이나 합목을 사용하였다.⁵³⁾ 그 자루의 형태상 특징은 “손으로 잡는 밑동부터 차츰차츰 가늘어지고 곧아지다가 창머리에 와서 그친다.”⁵⁴⁾는 형태였다. 이는 긴 창을 운용할 때 槍頭 부분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창의 허리 부분이 쉽게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장창을 사용하는 長槍手는 힘이 많이 들고 기구가 길어서 사용하는 자가 쉽게 피로해지므로 반드시 情神과 骨力이 있는 자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⁵⁵⁾ 또한 원거리의 적을 요격하기

52) 『武藝圖譜通志』 卷首, 凡例. “一 兵技不出刺砍擊三法 故今以槍刀拳三技爲首.”

53) 『武藝圖譜通志』 1卷, 長槍.

54) 『武藝圖譜通志』 1卷, 長槍. “把從根起漸漸細直至頭而止.”

55) 『兵學指南演義』 2卷, 營陣正設 編兵 槍, “槍本勢多器長架手易老 故必用精神骨力者.”

위해서 槍手는 弓矢를 익히게 하고,⁵⁶⁾ 동개를 패용하여 전투시 장거리 병기를 함께 활용하도록 하였다.⁵⁷⁾ 다음은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장창을 연속으로 익히는 長槍前譜 12勢와 長槍後譜 12勢의 내용이다.

(장창진보) 처음에 태산압란세를 하고, 즉시 미인인침세를 하고, 인하여 철번간세를 하고, 창을 빼내어 사이빈복세를 한다. 문득 적수세를 하고, 지남침세를 하고, 즉시 발을 연결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적수세와 지남침세로 연달아 두 걸음 나아가다. 문득 철우경지세를 하며, 즉시 십면매복세를 하여 한번 찌른다. 적수세와 지남침세로써 한걸음 물러가고, 또 적수세와 지남침세로 한걸음 물러가 원지에 선다. 적수세와 지남침세로 한걸음 나아가고, 또 적수세와 지남침세로 연결하여 두 걸음 나아가고, 문득 철우경지세를 하며 십면매복세로 한번 찌른다. 또 적수세와 지남침세를 하고, 인하여 변란세를 하는데, 급히 몸을 돌리며 창을 돌려 한 걸음 물러가 백원타도세를 한다. 또 한걸음 물러가 원지에 서서 기룡세를 한다. 또 적수세와 지남침세로 한걸음 나아가고, 즉시 철우경지세를 하고, 십면매복세로 한번 찌른다. 그리고 적수세와 지남침세하고, 철번간세로써 창을 접하고, 태공조어세를 하고 마친다.⁵⁸⁾

56) 『兵學指南演義』 2卷, 營陣正穀 遠近兼授 第五, “槍手以槍爲短兼習弓矢爲長.”

57) 노동호, 「戚繼光의 南兵 무예에 관한 고찰」 『무예연구』 43호, 한국무예학회, 2022, 16-17쪽.

58) 『武藝圖譜通志』 1卷, 長槍前譜. “(長槍前譜) 初作太山壓卵勢 仍作鐵鞭竿勢 抽槍作四夷賓服勢 便作滴水勢 作指南針勢 卽連足 進一步 又以滴水指南針勢 連進二步 便作鐵牛耕地勢 旋作十面埋伏勢 一刺 以滴水指南針勢 退一步 又以滴水指南針勢 退一步 立原地 以滴水指南針勢 進一步 又以滴水指南針勢連進二步 便爲鐵牛耕地勢 以十面埋伏勢 一刺 又爲滴水指南針勢 仍作邊攔勢 急轉身回槍 退一步 作白猿拖刀勢 又退一步立原地 作騎龍勢 又以滴水指南針勢 進一步 卽爲鐵牛耕地勢 以十面埋伏勢 一刺 仍爲滴水指南針勢 以鐵鞭竿勢點槍 作太公約魚勢 畢.”

(장창후보) 처음에 조친세를 하고, 즉시 창룡과미세를 하고, 한 걸음 나아가 복호세를 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복호세를 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퇴산색해세를 하고, 한번 찌른다. 한 걸음 물러가 포지급세를 하고, 또 한 걸음 물러가 비과세를 하고, 한 걸음 나아가 요자박요순세를 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영묘착서세를 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청룡헌조세를 한다. 한 걸음 물러가 엄검세를 하고, 또 한 걸음 물러가 틈홍문세를 하고, 한 걸음 나아가 야차탐해세를 하고서 마친다.⁵⁹⁾

위의 長槍前譜는 임란시 明軍에 의해 직접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長槍後譜는 그 과정에서 조선군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창의 운용법을 韓嶠를 중심으로 조선군이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이 두 가지 譜는 『武藝諸譜』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장창의 핵심자세는 먼저 ‘太山壓卵勢’와 ‘美人認針勢’라고 하여 장창을 높이 들었다가 적을 향해 창을 겨누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適水勢’와 ‘指南針勢’를 반복하는데, 이 자세는 긴 창 의 창날을 위아래로 흔들어 적의 진입을 막는 자세였다. 이렇게 창날을 위아래로 흔들며 이동하면 상대 기병이 탄 전투마의 시선을 교란할 수도 있으며, 칼을 비롯한 짧은 무기를 든 상대 보병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바로 이어 뒤로 물러 설 때에도 마치 규격화된 움직임처럼 적 수세와 지남침세를 반복하며 열을 맞춰 뒤로 물러가는 자세를 훈련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번 낮고 깊게 찌르는 ‘十面埋伏勢’로 적 보병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59) 『武藝圖譜通志』1卷, 長槍後譜. “(長槍後譜) 初作朝天勢 旋作蒼龍擺尾勢 進一步作伏虎勢 又進一步 爲伏虎勢 又進一步 作堆山寨海勢 一刺 退一步 作鋪地錦勢 又退一步 作琵琶勢 進一步 作鷄子撲鷄勢 又進一步 作靈猫捉鼠勢 又進一步 作青龍獻爪勢 退一步 作掩劍勢 又退一步 作闖鴻門勢 進一步 作夜叉探海勢 畢.”

흔히들 장창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창이기 때문에 찌르기가 가장 중요한 기법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위의 장창사료에서 밑줄 친 부분처럼 찌르기(一刺)는 전체 자세에서 4회에 그친다. 장창의 주된 기법은 적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창날을 위아래로 흔드는 대적과 기만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창날로 찌르기보다는 높이 들었다가 내려치는 기법이 대규모 진법에서는 더 효과적이기도 했다.

거기에 상대방의 병기를 사선방향으로 눌러 막는 자세인 ‘邊攔勢’와 함께 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며 회피하고 물러서는 ‘白猿拖刀勢’가 독특한 장창 방어술이다. 그리고 빠른 회피기동 후에는 반드시 말을 탄 기병의 몸통이나 전투마의 목을 향해 정면으로 찌르듯 겨냥하는 ‘騎龍勢’를 취하게 된다.⁶⁰⁾

이런 이유로 조선전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창 의 대부분이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長槍과 中槍 계열의 창이었다. 장창은 그 길이가 길어서 한번 움직일 때 허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鎧鉞와 짝을 이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陣法에서 활용하였다.⁶¹⁾

그러나 곧고 장창을 만들 수 있는 긴 주목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대체재로 선택된 것이 대나무인데, 비록 속이 비어있

60) 보통 창을 훈련하는 자세 명칭에서 상대방을 ‘龍’으로 쓸 경우는 주로 上馬한 상대 기병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61) 『兵學指南演義』 2卷, 營陣正毅 器械. “長短相濟第四 二牌平列狼筥 各覆一牌 長槍每二技各分管一牌一筥 短兵防長槍進老 此及殺賊必勝 第一戰法 筥以用牌 槍以救筥 鉞以救槍.” ; 長槍이 전진공격을 하면 鎧鉞가 측면을 방어해 주는 움직임이다. 長槍總圖와 鎧鉞總圖를 비교해보면 장창이 滴水-指南針勢로 공격하면 鎧鉞手는 進步勢로 함께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다. 長槍의 측면으로 적이 파고들 경우 빠르게 당파가 拿槍-架槍勢를 이용하여 적의 장창이나 긴 무기를 찍어 누르는 형태의 움직임을 펼치는 것이다. 장창과 당파의 상호 보완 움직임은 최형국, 「朝鮮後期 陣法 鴛鴦陣의 軍士武藝 特性」 『군사』 78, 군사편찬연구소, 2011. 이 자세하다.

어 견고함은 부족하지만, 빠르게 장창물량을 생산하여 전장에 보급하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것이 竹長槍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고 마르면 가벼워져서 쉽게 창 허리 부분이 부러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접착제를 이용해 積竹의 형태로 강화된 죽장창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죽장창을 연속으로 익히는 譜의 내용이다.

처음에 태산압란세를 하는데, 양손으로 창을 세워 잡고 창을 흔들어서 크게 고함을 지른다. 즉시 진왕점기세를 하는데, 한번 들어 한번 점하기를 똑같이 세 번 한다. 인하여 금룡파미세를 하는데, 오른손으로 앞을 잡고, 왼손으로 뒤를 잡아 왼편으로 회룡하기를 세 번 한다. 단봉무풍세를 하는데, 오른편으로 회룡하기를 세 번 한다. 또 한신마기세를 하는데, 양손으로 창 뒤 끝을 잡고 앞을 한번 찌르고 좌우로 회룡하기를 한번 하다가 양손을 높이 든다. 그리고서 백원타도세를 하는데, 왼손을 낮추고 오른손을 높인다. 창을 끝듯이 물러나와 철번간세를 하는데, 양손으로 창 뒤끝을 잡아 평평히 드는데, 앞을 낮추고 뒤를 높인다. 인하여 금룡파미세를 하고, 또 단봉무풍세를 세 번 한다. 즉시 한신마기세를 하고, 인하여 백원타도세로 물러 들어가 마친다.⁶²⁾

죽장창은 전체 7勢이며 핵심 자세를 살펴보면, 창을 높이 들었다가 앞을 향해 세 번 연속으로 내려치는 ‘秦王點旗勢’와 왼편과 오른편을 향해 창날을 세 번 연속으로 등글게 돌리며 상대

62) 『武藝圖譜通志』1卷, 竹長槍譜. “初作太山壓卵勢 兩手樹槍搖磨 高叫一聲 旋作秦王點旗勢 一舉一點 共三次 仍作金龍擺尾勢 右手執前 左手把後 左弄三次 作丹鳳舞風勢 右弄三次 又作韓信磨旗勢 兩手執槍尾 前一刺 左右弄一次 雙手高舉 仍作白猿拖刀勢 左手低右手高 曳槍退入 作鐵翻竿勢 兩手執槍尾平舉 前低後高 仍作金龍擺尾勢 又作丹鳳舞風勢 旋作韓信磨旗勢 仍作白猿拖刀勢退入 畢.”

기병이 탄 전투마의 시선을 교란시키는 ‘金龍擺尾勢’와 ‘丹鳳舞風勢’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弄’은 창으로 희롱한다는 의미로 창끝을 작은 원형으로 감는 자세를 말한다. 왼쪽과 오른쪽 대칭으로 움직여 長槍의 움직임을 보완하는 자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창과 죽장창의 길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短槍인 旗槍이 추가된 것이다. 군사 무기로 활용한 旗槍은 2m 내외의 짧은 창에 붉은 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깃발을 달아 전투에 사용하였다. 이 무예는 소규모 단위의 부대의 신호용으로 활용하기도 하였고, 작은 깃발을 이용하여 적 기병이 탄 전투마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旗槍을 연속으로 익히는 譜의 내용이다.

처음에 용약재연세를 하는데, 왼손으로 창을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편 옆구리를 끼고, 바로 섰다가 오른 주먹으로 앞을 친다. 즉시 거극세를 하는데, 오른손과 왼발을 높이 든다. 그리고서 야차탐해세를 하는데, 창을 왼편 겨드랑이에 끼고 오른 주먹으로 앞을 친다. 그리고서 중평세를 하는데, 왼손 왼다리로 한번 찌르고, 또 한번 중평세로 앞을 찌른다. 인하여 진왕마기세를 하는데, 왼손과 왼다리로 밖으로부터 안으로 휘두르고, 또 한번 휘두른다. 즉시 한신점기세를 하는데, 왼손 왼다리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한번 점하고 즉시 중평세로써 한번 찌른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복호세를 하는데, 왼손을 높이 들고 오른손을 낮게 잡아 왼손과 오른 다리로 한번 찌르고 또 다시 복호세로 한번 찌른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퇴산색해세를 하는데, 왼손과 왼다리를 높이 들어 한번 찌른다. 인하여 창을 들고 왼편으로 돌며 바꿔 잡아 은교출해세를 하는데, 오른손 오른발로 창을 희롱하며 뒤를 향하여 바로 들어간

다. 인하여 중평세로 한번 찌른다. 또 복호세를 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낮게 잡아 오른손과 왼다리로 한번 찌른다. 또 한번 복호세로 찌른다. 즉시 왼편으로 한번 돌아 바꿔 잡고, 오른손과 오른다리로 오른편을 향하며 한번 찌른다. 즉시 오른편으로 한번 돌아 바꿔 잡고, 왼손과 왼다리로 왼편을 향하며 한번 찌른다. 즉시 왼편으로 한번 돌아 바꿔 잡고, 오른손과 오른다리로 뒤를 향하여 한번 찌른다. 즉시 오른편으로 한번 돌아 바꿔 잡고, 앞을 향하여 한발 나아가고 한 걸음을 뛰어나가며 왼손과 왼다리로 한번 찌른다. 즉시 야차탐해세를 하고 마친다.⁶³⁾

기창은 전체 16勢로 빠르게 창을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적인 자세는 짧은 창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빠르게 연속으로 찢러 들어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찢르기(一刺) 부분을 보면 13번으로 ‘中平勢’라고 하여 상대의 몸통을 향하여 찢러 들어간 후 바로 연속으로 찢르는 자세이다.

바로 이어 창날을 수평으로 하여 상대방의 목이나 눈을 가로로 베듯이 움직이는데, 역시 두 번을 연속으로 굶는다. 그것이 ‘秦王磨旗勢’다. 이렇게 기창을 가로로 베듯이 움직이면 기창에 묶어 놓은 깃발이 펴리며 상대방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63) 『武藝圖譜通志』1卷, 旗槍譜. “作龍躍在淵勢 左手執槍 右手右挾 正立右拳前打 旋作舉戟勢 右手左脚高舉 仍作夜叉探海勢 挾槍左腋 以右拳前一打 仍作中平勢 左手左脚 一刺 又作中平勢 一刺 仍作秦王磨旗勢 左手左脚 自外內一磨 又作一磨 旋作韓信點旗勢 左手左脚 自內外一點 即以中平勢 一刺 左右手換執 作伏虎勢 左手高右手低 左手右脚 一刺 又作伏虎勢 一刺 左右手換執 作堆山寨海勢 左手左脚高 二刺 仍舉戟 左廻換執 作銀蛟出海勢 右手右脚 弄槍向後直入 仍作中平勢 一刺 又作伏虎勢 左右手換執 右手高左手低 右手左脚 一刺 又作伏虎勢 一刺 即左一廻換執 右手右脚 向右 一刺 即右一廻換執 左手左脚 向左 一刺 即左一廻換執 右手右脚 向後 一刺 即右一廻換執 向前進一足 跳一步 左手左脚 一刺 即作夜叉探海勢 畢.”

그리고 창날을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내리꽂으며 낮게 밀고 들어오는 적의 무기나 발을 빠르게 연속으로 찌르는 ‘伏虎勢’를 취한다. 만약 적의 무기가 가로로 쳐 들어올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몸통을 방어할 수 있는 자세도 된다. 이후 창날을 사선으로 높이 세우며 마치 전투마에 올라탄 기병을 찌르거나 전투마의 목을 아래서 위쪽 사선 방향으로 찢러 들어가는 ‘堆山寨海勢’를 취한다. 기창의 짧은 깃발로 전투마의 시선을 교란시키고 이후 빠르게 말의 목을 찢러 기병을 낙마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창은 4m 이상의 긴 창이므로, 손을 잡는 창 허리 부분이 길어 기병과의 충돌시 창자루가 쉽게 부러져 찌르기 보다는 창날을 이용한 견제 혹은 내려치는 경우가 많았다.⁶⁴⁾ 반면 기창 즉, 단창은 빠르게 이동하여 적이 탄 말의 목이나 배를 찢러 기병을 낙마시키는 전술에 자주 활용하였다.

鎗鉞는 창날이 세 개의 가지처럼 뻗어난 창을 말하며, 조선초기 간행된 『五禮儀』 중 軍禮條에 ‘戟’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확인된다. 조선전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임란을 거치며 明軍에 의해 독특한 운용기법이 조선군에 보급된 무기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長槍과 長短의 보완무기 역할을 하는 것이 진법 속에서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또한 장창이 弓矢를 겸용하는 것처럼 당파는 火箭을 가지 사이에 걸어 放射하는 원사무기를 겸하는 것이 진법 운용시 특징이기도 했다.⁶⁵⁾ 다음은 조선 후기 창검무예 기법을 통일화시키기 위해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鎗鉞를 연속으로 익히는 譜의 내용이다.

64) 『武藝諸譜翻譯續集』 夾刀棍.

65) 『兵學指南演義』 2卷, 營陣正毅 作戰第十五. “約禮 作戰第十五 賊在百步之內 鳥銃手齊放 次前層鉞弓手放射次 後層殺手出戰 再進再退 至鳥銃之前銃手急出齊放 次退面層內鉞弓手放射 次前層殺手出戰 再進再退 至鳥銃之前立定 次兩層殺手俱出一戰賊敗 各分原隊 間花疊退俱面信地.”

처음에 조천세를 한다. 즉시 중평세로 한번 찌르고, 한걸음 나아간다. 진보세로 나아가 중평세로 한번 찌른다. 또 한걸음 나아가 진보세를 하고 중평세로 한번 찌른다. 또 한걸음 나아가 중평세로서 한번 찌른다. 인하여 복호세를 한다. 한발 나아가 기룡세를 하고, 한발 나아가 중평세로 한번 찌른다. 한걸음 물러가 복호세를 하고, 중평세로 한 번 찌른다. 또 한걸음 물러가 복호세를 하고, 중평세로 한번 찌른다. 또 한걸음 물러가 복호세를 하고, 중평세로 한번 찌른다. 그리고서 복호세를 하고, 한 발 나아가 기룡세를 한다. 연속된 발로 한걸음 나아가 나창세를 한다. 한발 나아가 가창세를 하고, 한발 나아가 기룡세를 한다. 연속된 발로 한 걸음 나아가 나창세를 한다. 한발 나아가 가창세를 한다. 인하여 복호를 하고, 한걸음 나아가 중평세로 한번 찌른다. 한걸음 물러가 복호세로 한번 찌른다. 또 한걸음 물러가 복호세로 한번 찌른다. 그리고서 복호세로 오른쪽을 향하여 옆으로 돌면서 한걸음 나아가 기룡세를 하고 마친다.⁶⁶⁾

당파는 전체 7勢로 아주 단순한 찌르기가 12회 정도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당파의 핵심 움직임은 長槍의 움직임과 연동된다. 상대방이 장창으로 찰러 들어오면, 그것을 당파로 포크처럼 찍어 눌러야 한다. 그것이 조선후기 병서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당파의 자세 중 ‘伏虎勢’다.

66) 『武藝圖譜通志』1卷, 鏡鉞譜. “初作朝天勢 旋作中平勢 一刺 進一步 作進步勢 以中平勢 一刺 又進一步 爲進步勢 以中平勢 一刺 又進一步 以中平勢 一刺 仍作伏虎勢 進一足 作騎龍勢 進一足 爲中平勢 一刺 退一步 爲伏虎勢 以中平勢 一刺 又退一步 爲伏虎勢 以中平勢 一刺 又退一步 爲伏虎勢 以中平勢 一刺 仍爲伏虎勢 進一足 爲騎龍勢 連足進一步 作拿槍勢 進一足 爲架槍勢 進一足 爲騎龍勢 連足進一步 爲拿槍勢 進一足 爲架槍勢 仍爲伏虎勢 進一步 以中平勢 一刺 退一步 爲伏虎勢 一刺 又退一步 爲伏虎勢 一刺 又退一步 爲伏虎勢 一刺 仍爲伏虎勢 向右邊轉 進一步 以騎龍勢 畢.”

그런데 당파의 가지 날에 찍어 눌린 상대방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마치 나뭇가지로 뱀 머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상대방 무기를 온힘으로 찍어 눌러 압박하며 버텨야 하기에 膽力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⁶⁷⁾

만약 상대의 창이 당파에서 빠져 나갈 상황이 발생하면, 복호세에서 창날을 머리 위쪽으로 높이 들어 올리는 ‘기룡세’로 공격을 피한다. 바로 이어 상대의 무기를 사로잡듯 낮게 찍어 누르는 ‘나창세’를 취했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가창세’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 시작자세인 ‘조천세’와 당파로 전방을 겨누며 밀고 들어가는 ‘진보세’를 비롯하여 수평으로 찢러 들어가는 ‘중평세’ 등 전체 일곱 개의 자세로 아주 단순하게 구성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騎槍은 기병들이 활용하는 마상무예로 조선전기와 후기의 무과시험 자세들이 모두 담겨 있다.⁶⁸⁾ 騎槍에서 사용하는 창 자루의 길이는 15尺으로 步長槍과 같은 상당히 긴 창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騎槍을 익히는 譜와 交戰譜 내용이다.

처음에 말을 출발시킬 때 오른손으로 고삐를 잡고, 왼쪽 거드랑이에 창을 끼고 신월상천세를 한다. 오른손으로 창자루 앞을 잡고 왼손으로 창자루 뒤를 잡아 이마 위로 높이 든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좌전일자세를 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우전일자세를 한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좌후일자세를 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67) 『兵學指南演義』 2卷, 營陣正毅 編兵. “膽性指其內也 鈿本防槍殺敵 故必取勇威者而授之也.”

68) 무과시험 중 騎槍은 조선전기의 芻人을 공격하는 방식과 조선후기의 騎槍交戰방식으로 크게 구별된다. 이러한 기장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한다. 최형국, 「조선 肅宗代 地方 騎兵部隊 창설과 馬上武藝의 변화」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2011.

우전일자세를 한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우후일자세를 한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좌전일자세를 한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잡아 우전일자세를 한다. 인하여 농창세를 하여 오른편 안쪽으로 한번 휘두른다. 왼쪽 안쪽으로 한번 휘두르는데, 이같이 하기를 수없이 반복한다.⁶⁹⁾

(기창교전보)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나란히 섰다가 갑이 먼저 말을 몰아 150보에 이르러 말을 되돌리면, 을이 말을 몰아 서로 만나 창을 들어 한 번 맞부딪치고, 각각 오른편으로 쫓아 스쳐지나 오른편을 돌아보며 자리를 바꿔 원위치에 이른다. 다시 말을 몰아서 서로 맞부딪히기를 이같이 세 번 한다. 갑이 을을 쫓아 서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면 붙잡히거나 혹은 묶이거나 혹은 겨드랑이에 끼이거나 하여 말을 달려 원위치로 돌아온다.⁷⁰⁾

위의 사료 중 騎槍譜는 단독으로 좌우로 펼쳐진 芻人을 향해 달리며 연속으로 찌르기 공격을 하는 방식을 정리한 것이고, 騎槍交戰譜는 두 사람의 기병이 서로 맞서 싸우는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창교전시 사용하는 창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창끝을 가죽으로 감싸고 붉은 물감을 붙인 皮頭槍을 사용하였다.⁷¹⁾

69) 『武藝圖譜通志』 1卷, 騎槍. “(騎槍譜) 初出馬 右手執轡 左腋挾槍 作新月上天勢 右手執前 左手執後 高舉過額 換執左右手 作左前一刺勢 換執左右手 作右前一刺勢 換執左右手 作左後一刺勢 換執左右手 作右前一刺勢 換執左右手 作左前一刺勢 換執左右手 作右後一刺勢 換執左右手 作左前一刺 換執左右手 作右前一刺勢 仍作弄槍勢 右內揮一次 左內揮一次 如是者 無定數.”

70) 『武藝圖譜通志』 1卷, 騎槍. “(騎槍交戰譜) 兩人並立馬 甲 先縱馬 至百五十步許 回馬 乙 縱馬 相遇舉 槍一撞 各從右裏過 右顧換 至原地 復縱馬相遇 如是者三次 甲 逐乙相戰 不勝者 被擒 或縛 或腋 馳馬 回原地.”

71) 『世宗實錄』 51卷, 世宗 13年 3月 18日 壬午條. 이러한 방식으로 3-9명씩 조를 이뤄 교전하는 것을 甲乙槍(2조)과 三甲槍(3조)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狼筈은 대나무로 만든 죽장창처럼 긴 창
형태였다. 전장 1丈 5尺, 약 4m 60cm의 긴 창대에 대나무의
가지를 제거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외형이다. 대나무 겉가지는
손잡을 부분에는 제거하지만 창날 쪽부터 약 9층에서 11층까지
가지를 자르지 않고 끝부분만 살짝 마무리 지어 그 끝에 독을
묻힌 작은 쇠 창날 수십 개를 하나씩 끼워 넣었다. 다음은 『무
예도보통지』에 수록된 狼筈을 연속으로 익히는 譜의 내용이다.

처음에 중평세를 하고, 즉시 오른발을 들어 압하세를 한다.
그리고서 가상세로 한번 찌르고 또 한번 찌른다. 즉시 한
걸음 나아가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른다. 또 한
걸음 나아가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 번 찌른다. 또 한
걸음 나아가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르고, 또 한
번 찌른다. 한걸음 물러나 요보퇴세를 하고,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른다. 또 요보퇴세를 하고, 한걸음 물러나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른다. 인하여 오른편 가장
자리를 향하여 몸을 돌리며 한걸음 옮겨 구개세를 하고,
왼편 가장자리를 향하여 몸을 돌리며 한걸음 옮겨 압하세
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른다. 돌아오며 오른편을 향하여
몸을 돌려 한걸음 옮겨 구개세를 한다. 왼편 가장자리를
향하여 한걸음 옮겨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르고
또 한번 찌른다. 또 요보퇴세로 한 걸음 물러가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른다. 또 요보퇴세로 한 걸음 물러
나 압하세를 하고, 가상세로 한번 찌른다. 한발 구르고 한
걸음 나아가 기룡세를 하고 마친다.⁷²⁾

72) 『武藝圖譜通志』 1卷, 狼筈譜. “初作中平勢 旋舉一足 作闌下勢 仍作架上勢 一刺
又一刺 卽進一步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又進一步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又
進一步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又一刺 退一步 作拗步退勢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又以拗步退勢 退一步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仍向右邊轉一步 作鉤開勢 向
左邊轉一步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還向右轉一步 爲鉤開勢 向左邊轉一步 爲闌
下勢 以架上勢 一刺 又一刺 又以拗步退勢 退一步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又以
拗步退勢 退一步 爲闌下勢 以架上勢 一刺 頓一足 進一步 作騎龍勢 畢.”

낭선은 전체 6가지의 단순한 자세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자세에는 마치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듯, 상대를 향해 빙글빙글 돌리며 파고드는 자세가 특징적이다. 낭선을 아래로 누르듯 돌리면 ‘闌下勢’가 되고, 반대쪽으로 올리듯 돌리면 ‘架上勢’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병기를 자유롭게 회전시켜야 했으니 낭선의 재료도 튼튼해야 했으며, 그 병사 선병방법에서도 첫 번째가 힘이었다.⁷³⁾

그래서 그 무겁고 독특한 회전 자세를 만들기 위해 뒷손은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왼손의 검지와 중지사이에 낭선 뒤쪽을 끼우듯이 잡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무기를 드는 뒷손은 장창을 들 때처럼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을 꺾어 무기를 잡지만, 낭선은 좌우로 팔을 완전히 벌리듯 잡아야 하기에 독특한 把指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넓은 면적을 두 팔을 벌려 잡을 수 있기에 낭선을 통제하기 쉬웠다.

그리고 적이 빠르게 돌진해 올 경우, ‘拗步退勢’를 이용하며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낭선을 빙글빙글 돌리며 적의 진입을 막아낸다. 바로 이어 낭선의 가장 폭발적인 자세인 ‘鉤開勢’로 상대방을 쓸어낸다. 구개세는 마치 큰 갈고리 혹은 빗자루로 좌우를 쓸어내듯이 낭선을 휘두르는 자세를 말한다.

이때에는 낭선의 길이와 무게를 생각해서 오른편으로 한발 움직여 동작의 중심으로 잡고 다시 반대편으로 발을 옮기며 낭선을 휘두르게 된다. 4미터가 넘는 가시철조망을 좌우로 휘두르면 쉽게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가 이것을 피하거나 막으면 다시 낭선을 빙글빙글 돌리며 적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73) 『兵學指南演義』2卷, 營陣正毅 編兵, “筥爲一隊之先鋒 貌儀豐偉 則足奪故人膽視也 此器重滯 故應得猛力然後可使制用矣.”

낭선의 장점이 크고 무거운 일종의 휴대용 철조망인데, 그것이 단점과도 직결된다. 낭선은 육중하고 동작이 커서 만약 낭선의 큰 움직임 사이로 적이 빠르게 파고 들어온다면 방어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진법에서 또 하나의 방어전법이 고안되었다. 바로 藤牌라는 방패수와 함께 한 짝이 되어 접근전을 펼치는 적군을 막아내는 것이었다.⁷⁴⁾

이처럼 短兵무예 중 긴 무기와 짧은 무기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陣法 속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長短에 따른 무기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長槍과 鑱鈹 두 종류는 적을 죽이는 器械이고, 藤牌와 狼筍 두 종류는 적을 방어하는 기계다. 또 장창과 낭선은 短兵 중에 長兵이고, 등패와 당과는 短兵 중에 短兵이다. 이 진영은 하나는 긴 병기를 사용하고 하나는 짧은 병기를 사용하며, 하나는 적을 죽이는 병기를 사용하고 하나는 적을 방어하는 병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⁷⁵⁾

위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이 길이나 무게 혹은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공격법과 방어법을 갖기에 등패와 짝이 되는 등 다양한 상호협력 전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병기의 특성을 조합하는 방식을 ‘長以求短 短以求長’이라고 하였다.⁷⁶⁾

장창과 낭선을 비롯한 조선군이 활용한 槍類 무기는 대구경 화약무기인 화포와 기병전술과 혼합되어 실제 군사훈련에서 단

74) 이러한 진법에서 狼筍과 藤牌의 상호보완 역할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최형국, 『武藝圖譜通志』 「藤牌」의 그림 배치 오류와 陣法 연관성 『무예연구』 15-4, 한국무예학회, 2021.

75) 『兵學指南演義』 2卷, 營陣正穀 三才陣第七. “槍鈹二種殺器也 牌筍二種禦器也 又槍與筍短中長也 牌與鈹短中短也 此陣一長一短 一殺一禦雜.”

76) 『兵學指南演義』 2卷, 營陣正穀 長短相濟.

병무예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조선후기 正祖代에 새롭게 축성한 華城의 경우도 이러한 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단병무기와 의 조합을 통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이 百步 안에 들어오면, 步軍의 戰統과 駐統이 합하여 외진을 갖추어 쫓아 움직인다. 佛狼機와 威遠砲 등을 갖추어 砲手와 弩와 튼튼한 활 등을 步駐隊 앞쪽으로 배치한다. 먼저 총과 활을 발사한다. 이어서 短兵接戰이 일어날 때, 駐隊는 원사무기를 거두고 행렬을 조밀하게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戰統의 총수들은 총을 버리고 칼로 무장한다. 狼筈은 등패를 구하고, 창은 낭선을 구원하고, 당파는 창을 방어한다. 騎兵의 기본무장으로 弓·刀·槍·棍 등을 준다. 그리고 총과 화살을 겸하게 함으로써 그 길고 짧음이 서로 순환하게 하여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⁷⁷⁾

위의 사료를 보면, 적과의 거리에 따라 불랑기와 위원포 등의 화포로 1차 요격을 하고, 이후 2차로 총과 활을 발사하여 원거리 전투를 수행한다. 그리고 적이 근접거리로 들어오면 총수와 궁수가 모두 창이나 낭선을 비롯한 단병접전용 무기로 무기를 교체하여 백병전을 대비하는 전술훈련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까지 조선군이 훈련했던 여러 가지 槍術은 18 세기에도 여전히 단병접전용으로 활용가치가 있었으며 기병이나 화포와 같은 다른 병종과의 조합을 통해 대규모 진법에서 그 지

77) 『研經齋全集外集』 卷 四十二, 傳記類 華城軍制 陣法. “賊在百步之內 則步軍戰駐統合就外壘具擧 佛狼威遠等 砲手弩勁弩等 具藏鋪於駐隊之前 先銃弓而放之射之及短兵相接之時 駐隊收拾器械 按列不動 戰統銃手棄銃而用刀 筈以救牌 槍以救筈 鈚以防槍 騎兵則原授弓刀槍棍 而兼授銃矢以 之長短相傷循環 不窮者.”

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純祖代에 훈련대장 朴宗慶이 간행한 『戎垣必備』의 鋒刃類에는 槍·刀·武叉·蛇矛·鞭棍 등 다양한 槍類의 무기들에 대한 제작방식과 특징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 말기까지도 일정부분 창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존재했고, 이를 운용하는 기법이 군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훈련되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창을 비롯한 조선의 창술은 보병의 중요 무예로 守城戰과 진법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단병무예였다. 특히 조선은 山城을 비롯한 성곽을 중심으로 한 공격과 방어 전략에 집중했는데, 槍術은 수성전에서 弓矢와 함께 짝을 이뤄 근접하는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핵심 기법이였다.

그러나 조선전기 무과시험 과목에서 창검술이 제외되므로써 그 활용하는 기법인 창술 또한 기병이 익히는 騎槍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군의 새로운 戰法에 대항하기 위해 明軍의 창술을 흡수 및 발전시켰다. 이때 새롭게 보급된 창술은 임란기 『무예제보』를 거쳐 정조시대 『무예도보통지』에 騎槍을 추가로 정리하며 표준화되었다. 이때 정리된 창술은 長槍·竹長槍·旗槍·鎧鉞·騎槍·狼筈 등이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守城軍은 기본적으로 槍手와 弓手を 각각 50명을 기본으로 하여 편제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조선초기부터 지방의 모든 고을은 수령의 지휘아래 해마다 농번기를 제외한 시

기에 일정한 방위구역으로 나눠 이를 방어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野人의 기습이 잦았던 북방의 경우는 여기에 방패수를 추가하여 방패와 장창, 그리고 궁시를 연동하는 방어체계가 새롭게 고안되기도 하였다. 중앙군의 경우도 국왕의 근접 시위에 방패군과 연동하여 창수를 가장 많이 배치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방패수와 창수의 실전감각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교전훈련을 진행하다가 목검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왕의 친림 행사 때 창수들의 무예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은 시위군 중 창병이 의장과 호위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太宗代부터 정리되기 시작한 무과시험 과목 중 騎槍은 조선의 창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병용 창검술이 모두 무과시험 과목에서 제외되어 창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明의 요동 동녕 위에 소속된 군인이었다가 다시 조선에 귀화한 金加勿을 창술교관으로 임명하여 중앙군에 대한 집중적인 창술훈련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특히 김가물은 북방 야인과의 전투에 직접 투입될 정도로 실전감각이 뛰어나 이후 上將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인물이었다. 이렇게 창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장창을 비롯한 다양한 창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世祖代 당시 전국의 무기 생산물목을 보면, 1년 동안 전국에서 제작된 장창의 숫자는 3,760명이고, 중창은 6,079명으로 도합 9,839명으로 약 1만 자루의 창이 해마다 제조되어 군사들에게 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의 전술 및 무기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군의 騎兵과 대형 진법 중심의 五衛체제로는 일본군의 조총과 단병접전술을 가미한 전술을 극복하기 어

려웠다.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은 ‘三疊陣’으로 작은 깃발부대가 시선을 가렸다가 좌우로 흩어지고 바로 이어 조총수들이 연속 사격을 가하는 것과 동시 槍劍手들이 달려들거나 伏兵의 형태로 움직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명나라 장수인 척계광이 정리한 『기효신서』에 담겨 있던 창검법을 조선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무예제보』였다. 이 병서에 실린 여섯 가지 무예는 棍棒·籐牌·狼筈·長槍·鎧鈹·長刀 등으로 주로 일본군이 사용했던 倭劍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槍術이 주를 이뤘다.

넷째, 사도세자의 대리청정기인 英祖 35年(1759)에 창검류의 무예 12가지를 보완하여 『무예신보』가 편찬되었고, 이후 正祖 14年(1790)에는 騎槍을 비롯한 기병이 익혔던 마상무예 여섯 가지를 추가하여 총 24가지의 무예 24기로 완성한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되었다. 이 兵書에 정리된 여섯 가지 창술은 長槍·竹長槍·旗槍·鎧鈹·騎槍·狼筈 등으로 각각 장단병기가 서로 상생하며 전술을 펼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장창은 당파와 짝이 되고, 낭선은 등패와 짝이 되어 길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각의 창수들은 활을 비롯한 원사무기를 겸용하여 거리에 따른 전술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모든 병기는 각각의 특수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핵심 자세의 의미를 이해해야 올바른 전술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거대한 전쟁 혹은 중요 전투를 중심으로 군사사 연구가 이어져 왔지만, 좀 미시적인 무예사의 관점에서 병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술적 관계를 고찰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검이나 궁시를 비롯한 전통시대 병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추

가적으로 『용원필비』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류의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고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창술의 전술적 가치와 변화 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江漢集』

『高麗史』

『武藝圖譜通志』

『紀效新書』

『兵學指南演義』

『三國史記』

『惺所覆瓿藁』

『朝鮮王朝實錄』

『研經齋全集外集』

『日省錄』

2. 논문 및 단행본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한국의 칼문화』(한국대학박물관 협회 제47회 추계학술발표회), 육군박물관, 2002.

강성문, 「조선시대 環刀의 기능과 제조에 관한 연구」 『學藝誌』 3, 육군박물관, 1993.

김산, 『무예도보통지 長兵武藝 복원의 실제와 비판』,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산·김주화·김창우·송일훈, 「韓·中·日 長兵武藝 長槍 研究」 『한국체육학회지』 47-6, 한국체육학회, 2008.

G704-000541.2008.47.6.039

김성혜·박선식, 「조선시대 刀劍의 실측과 분석」 『學藝誌』 5, 육군박물관, 1997.

노동호, 「戚繼光의 南兵 무예에 관한 고찰」 『무예연구』 43, 한국무예학회, 2022.

<http://doi.org/10.51223/kosoma.2022.11.16.4.1-21>

- 노영구, 「선조대 紀效新書의 보급과 진법논의」, 『軍史』 34, 군사편찬연구소, 1997.
- _____, 「임진왜란 이후 戰法の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韓國文化』 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1.
- 이석재, 「寅劍의 辟邪 원리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71, 한국민속학회, 2020.
<http://doi.org/10.21318/TKF.2020.5.71.213>
- 鄭海恩,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군사』 51,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조희상, 「조선의 神劍에 대한 고찰-刀劍文學作品과 現存 遺物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6, 동방한문학회, 2021.
<http://doi.org/10.17293/dbkcls.2021..86.41>
-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연구-擊劍方式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G704-000849.2007..25.003
- _____, 「조선 肅宗代 地方 騎兵部隊 창설과 馬上武藝의 변화」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2011.
G704-002032.2011..44.008
- _____, 「朝鮮後期 陣法 鴛鴦陣의 軍士武藝 特性」 『군사』 78, 군사편찬연구소, 2011.
<http://doi.org/10.29212/mh.2011..78.71>
- _____,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민속원, 2021.
- 허인욱, 「金加勿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전기 槍術」 『무도연구소지』 20-1,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09.

(Abstract)

The Military Characteristics of Spear Martialarts and Spear Martialarts of 『Muyedobotongji』 in the Joseon Dynasty

Choi, Hyeong-Gu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ilitary phase and utilization form of Joseon spearmanship. It also summarizes various Chinese spearmanship techniques that were newly popularized by the Joseon army after the Imjin War. In particular, I specifically looked at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six spearmanship techniques such as Jangchang(長槍) · Jugjangchang(竹長槍) · Gichang(旗槍) · Dangpa(鎗鈹) · Gichang(騎槍) · Nangseon(狼筈) in 『Muyedobotongji』. Through this, we investigat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Joseon Dynasty spear. And I grasped the value as a military martial arts diachronically. It's take a look at some of them. First, the soldiers who guarded the fortresses of Joseon were basically composed of 50 spearmen and 50 archers each. In the case of the central army, the number of spear soldiers was the largest in conjunction with the number of shields for the king's close guard. Secondly, it was difficult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Spear technic, because all Sword and spear for infantrymen was excluded from the exam subjects of military service. Only the cavalry spear was maintained among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subjects, the basic content was still maintained. Thirdly, with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Joseon tactics and weapon systems underwent many changes. They had to overcome the attack method of the Japanese army, which was a mixture of guns and close proximity tactics. Therefore, it was decided to compile 『Muyejebo』 by compiling the spear sword method contained in 『Gihyosinseo』 compiled by Cheogyegwang(戚繼光) in the Joseon style. Fourthly, in the 14th year of King Jeongjo (1790), 『Muyedobotongji』 was published. The six spear techniques newly organized here could be used for tactics by

coexisting with each other with spears of various lengths.

Keywords : Spear, Long spear, Bamboo long spear, Cavalry spear,
Flag spear, Trident, History of Martialarts, Imjin War.